

블랙핑크, MTV 어워즈 2관왕

블랙핑크가 K팝 걸그룹으로 처음으로 미국 주요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 무대에 오르며 2관왕을 차지했다. 방탄소년단(BTS)은 '올해의 그룹' 상을 받으며 4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2022 MTV VMA에서 베스트 메타버스 퍼포먼스상 등 2관왕을 차지한 블랙핑크. 사진=VMA 트위터 캡처

블랙핑크는 지난 28일 뉴저지주 푸르덴셜센터에서 열린 '2022 VMA'에서 '베스트 메타버스 퍼포먼스'와 '베스트 K팝' 부문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1984년 출범한 VMA는 그래미어워드, 빌보드뮤직어워드, 아메리칸뮤직어워드와 함께 미국 4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힌다. 매년 올해의 비디오와 올해의 아티스트 등 20여 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발표한다.

블랙핑크가 VMA에서 수상한 것은 2020년 '하우 유

라이크 댓'으로 '송 오브 서머' 부문 상을 받은 이후 두 번째다.

이날 받은 '메타버스 퍼포먼스' 상은 올해 처음 신설된 부문으로 지난 7월 '베를린 모바일'에서 연 메타버스 콘서트가 큰 호응을 얻어 수상하게 됐다. 멤버 리사는 이날 지난해 9월 발표한 솔로 음반 '라리사'로 '베스트 K팝' 수상자로도 호명됐다. K팝 솔로 가수가 VMA에서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방탄소년단(BTS)은 '올해의 그룹' 수상자로 지명됐다. 2019년 이후 4년 연속 수상이다. 그룹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BTS는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세븐틴은 처음으로 '올해의 푸시 퍼포먼스' 부문 상을 받았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6년 만에 신곡 엘턴 존과 듀엣



▲ 브리트니 스피어스(왼쪽)와 엘턴 존(오른쪽). 사진=harpersbazaar.com

'팝의 여왕' 브리트니 스피어스(40)가 6년 만에 신곡을 들고 복귀했다.

2000년대 미국 음악계를 평정했던 스피어스는 지난 26일 소셜미디어에 "우리 시대의 가장 고전적인 남자인 영국의 전설적인 팝가수 엘턴 존과 함께 듀엣곡 '홀드 미 클로저' (Hold Me Closer)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곡은 2016년 앨범 '글로리' 발매 이후 6년 만이다.

특히 지난해 피후견인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은 스피어스는 이 곡으로 음악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그는 작년 11월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인 아버지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성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스피어스는 "6년 만에 나의 첫 노래이다. (신곡 발표는) 나에게 약간 벅차면서도 큰 일이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함께 노래 부른 엘턴 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존은 "스피어스는 팝의 아이콘이자 역대 가장 위대한 팝스타 중 한 명"이라 "우리가 함께 곡을 만들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부른 이 노래는 1971년 존이 발표한 발라드 '타이니 댄서' (Tiny Dancer)를 클럽 댄스풍으로 바꾼 리메이크곡이다. 스피어스 신곡은 발매 이후 몇 시간 만에 미국과 영국 아이튠즈 차트 1위에 올랐다.

영화 '분노의 질주' 길거리 촬영에 주민들 항의 시위

내년 개봉될 예정인 '분노의 질주' 10편 촬영장에서 주민들이 촬영을 중단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영화 '분노의 질주'의 10번째 작품 촬영지인 LA 엔젤리노 하이츠 주민들은 지난 26일 촬영장을 방문해 촬영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엔젤리노 하이츠는 이 시리즈에서 주요 배경으로 등장했던 곳이다.

엔젤리노 하이츠의 주민들은 분노의 질주 시리즈 촬영 이후 일부 관광객이 이 지역에서 고속 질주를 해 도로가 손상되고 주민들이 소음 피해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시리즈 흥행 이후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동네를 방문해 경주 등을 벌이며 도로에 검은 타이어 자국을 남기기도 했다. 현지 경찰은 지난 한 해 동안 이 지역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약 21% 증가했으며, 사망률 역시 약 30%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엔젤리노 하이츠 주민들은 촬영장 인근에서 "길거리 경주로 사람이 죽어 나간다!", "영화 촬영은 스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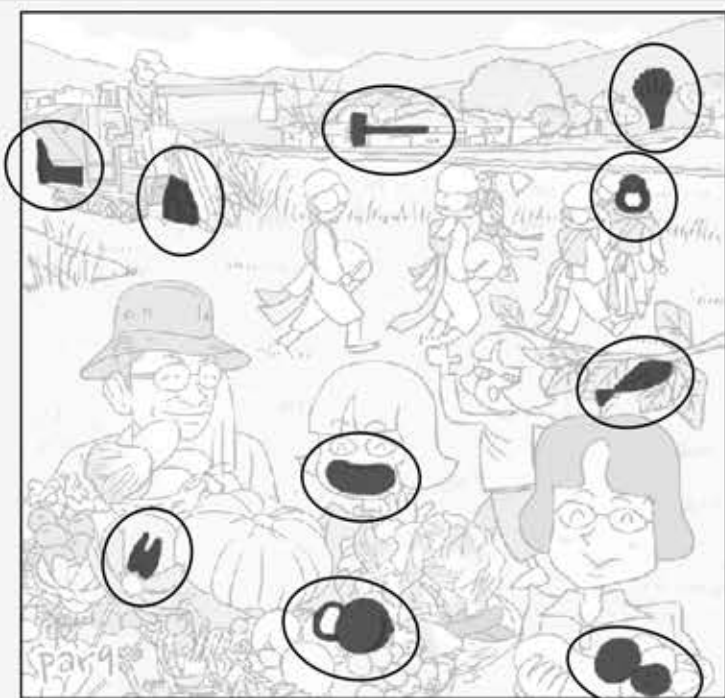


▲ 분노의 질주 영화 촬영에 반대하는 주민들. 사진=연합뉴스

디오에서 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 주민은 "아이들이 계속되는 자동차 질주 소리에 트라우마까지 생겼다."고 호소했다.

교통안전단체 '세이프'의 테이미언 케빗 이사는 "길거리 경주는 불법 행위보다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백천 운명철학원

뉴욕, 맨하탄에서 20년 만에 Laguna Woods, Irvine으로 이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언가 백천선생



백천 선생 (白泉 先生)

한국역술인협회 미주지구 회장
국제 예언가협회 이사장
1976. 한국역술인협회 정회원
1977. 대한 경심연합회 중앙감찰
1986. 세계 예언자 대회 동경
1989. 국제 예언자 대회 홍콩
2008. 한국 역술인협회 부회장
2008. 제20회 서울 국제 역학대회

신재공초재이방택이아상
수주합혼혼사향일름호호

영적과 학술을 겸비한 백천선생 감평

예정운/ 부부운/ 자녀운/ 직업운/ 사업운/ 재물운/
학업운/ 주택구입시기/ 이사운/ 집매매운/
풍수지리/ 방향/ 건강운/ 대인관계/ 동업운/
관재/ 소송/ 삼재풀이/ 방책예방/
*부부 특별 상담 (숫자운)

*코로나 사태로 당분간 전화상담만 받습니다.

전화 (213) 500-6363
상담 (909) 347-0505

*Zelle 또는 Venmo로 송금해주세요.

2381 Via Mariposa W #2h, Laguna Woods, CA 92637